

미래 전장환경에서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역할 및 기능

서이종*

본 논문은 21세기 미래 전장환경에서 물리적 파워 못지않게 비물리적인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셉 나이 교수의 문제의식을 한국 상황에 논구한 글이다. 먼저 그의 소프트 파워 전략은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우리 한국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의미미하다는 사실과 그 전략적 구성을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상징력, 문화력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원을 활용하는 주체로서 군의 인재력과 조직력으로 세분화하여 발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둘째 상징자원으로 '경제성장', '민주화된 나라', '새로운 문화창조 국가', '교육열' 등이 있으며 문화자원으로 '한류', '전통음식', '전통스포츠', 'IT 강국'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소프트파워를 갖기 위해서는 21세기 한국군은 기업 등 민간부문의 발달과 젊은이들의 개인주의적 가치와 그 다양성에 상응하여 군의 우수인재총원과 유연하고 네트워크형 조직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주제어: 소프트파워, 상징력, 문화력, 인재력, 조직력, 군

* 서울대학교, 사회학. 서울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1999년부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중앙전산원 부원장을 역임하였고 자연과학대학 과학사/철학 협동과정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전공은 과학기술사회학, 정보사회학, 지식사회학이며 주요 저서로는 『과학사회논쟁과 한국사회』(집문당, 2005), 『한국사회의 위험과 안전』(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인터넷 커뮤니티와 한국사회』(한울, 2002), 『한국 벤처기업가 벤처기업가정신』(인간사랑, 2002), 『지식정보사회의 이론과 실제(중보판)』(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등이 있다. yjsuh@snu.ac.kr

1. 문제제기

최근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전쟁'의 성격과 의미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국제교류가 날로 늘어나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늘어나고 지구촌 각 나라간 혹은 나라내 갈등이 그만큼 국제적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미래전쟁은 다양한 정도의 이해갈등을 갖는 여러 나라와의 상호의존성 속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그물망 치기'로서 네트워크 전쟁¹⁾의 성격을 띤다(하영선 외, 2006).

그런 여건에서 전쟁무기와 관련된 기술체계가 날로 발전하면서 각국은 경쟁적으로 첨단정예군으로 재편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국가 수준뿐만 아니라 단체나 개인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전선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01년 9·11 테러에서 극명하게 잘 보여주었다. 이제 상당한 파괴력을 넘어서 한 나라의 중요한 기반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조차 그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은 물리적 파위를 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슬람 테러단체로 알카에다를 지목하고 그를 후원하는 아프가니스탄 '텔레반' 정권과의 전쟁으로 나아갔고 이어 유엔의 동의 없이 이라크 전쟁으로 치달았다. 또한 이란과 북한도 테러지원국으로 간주되어 '악의 축'으로 지목되었다. 그 결과 이들 국가의 핵실험 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북핵문제로 우리나라도 그 한가운데에 있었다. 하지만 물리적 파위를 동원한 일련의 소위 '테러와의 전쟁'에서 응징은 국제적 반감을 증폭시켰으며 국제적 상호의존과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과연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는가 하는 의문은 더욱 깊어갔다.

1) 이러한 전쟁양상을 현대의 정보전쟁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네트워크 전쟁'(Network-Centric Warfare)은 기술적으로 전장의 제 전력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연결, 네트워크킹함으로써 지리적으로 분산된 제 전략요소들이 전장의 상황을 상호공유하고 활용하여 자체 동기화함으로써 지휘의 속도성을 확보하는 지식정보시대의 새로운 전쟁 및 작전 개념이다(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5).

그러한 측면에서 즉, 지구촌이라 할 정도로 날로 국제적 교류와 상호의존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전방위적 갈등과 전쟁이 가능한 현시점에서 조지프 S 나이 교수의 '소프트파워' (2004)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 나이 교수는 국제정치에서 물리적 파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소프트파워라는 사실을 역설하였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소프트 파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물리적 파워와 함께 적절히 동원하고 필요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미래전장에서 결정적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두 가지 파워 전략은 미래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래의 전장은 고도의 정보(첩보)전쟁, 사이버전쟁, 심리전쟁 등으로 표현된다. 상대진영에 대한 고도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두뇌싸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통로 및 네트워크를 차단하거나 와해하는 기술싸움 그리고 전쟁의 정당성과 내부 가치규범의 우월성에 기반한 고도의 심리전이라 할 수 있다. 즉 고도의 정보전, 사이버전, 그리고 심리전의 미래전쟁에서 개전과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형태를 포함하여 훨씬 다양하며 따라서 거대 기술의 물리적 힘 못지않게 그러한 기술을 운용하고 지휘하는 사람의 힘, 조직의 힘을 포함하여 그러한 사람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대항 심리를 와해하는 상징의 힘 등 소프트 파워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에서 세계적인 강대국들 사이에서 놓여 있는 강중국(強中國)²⁾으로서 세력균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물리적 파워 못지않게 비물리적 파워가 그만큼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미래전장에서 소프트파워의 역할과 그 구성요소로서 상징력, 문화력, 그리고 그 실현조건으로서 인재력과 조직력을 논하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고자 한다.

2) 강중국(強中國)은 인구나 경제규모 면에서 강대국(強大國)에 비해 그 규모가 중간 정도의 강한 국가를 지칭한다. 반면 규모가 작은 강한 국가의 경우는 강소국(強小國)이라 한다.

2. 미래 전쟁과 소프트 파워의 역할

미래 전쟁이 점점 더 네트워킹되는 국제사회에서 치루어지는 만큼, 정보(첩보)전, 사이버전, 혹은 심리전 등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비물리적 파워의 동원과 활용이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쟁을 논함에 있어서 국제정치적, 국제사회적 맥락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런 점에서 전쟁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 성찰도 중요하게 되었다.

통상 '힘'이란 "어느 사회적 관계 내에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저항에도 불구하고 관철할 수 있는 온갖 가능성"을 의미한다(Weber, 1913: 187). 여기서 이러한 가능성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하는 점에 따라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는 물리적 폭력과 정당한 '지배' (Herrschaft, dominance)라는 차원으로 구분한다. 폭력이란 물리적 파워를 동원하는 경우이며, 반면 지배란 상징적 파워를 동원하는 경우이다. 특히 막스 베버는 "타인의 의지에 반하는 어떤 명령에 대해서 물리적 폭력 행사없이 복종할 가능성"으로서 지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지배는 그에게서는 전통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거나, 지도자의 카리스마 혹은 합리성으로부터 온다고 역설하였다.³⁾

막스 베버에 의하면 현대적인 지배의 요체는 합리적 이성에 근거하는 정당한 지배에 있다. 그 핵심은 조세프 나이아가 말하듯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Nye, 2004: 23)이라 할 수 있다. 나이에게서 소프트 파워란 갈등 지점에서도 "어젠다를 설정하고 다른 나라의 호감을 사는 것"(Nye, 2004: 30)이다. 즉 소프트 파워는 "타인의 선호대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 타인과의 일반적인 관계나 결혼생활에서 살펴보면, 반드시 체구가 큰 쪽에 파워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미묘

3) 전통적인 지배란 전통사회에서 왕에 대한 복종 등에서 가장 잘 보여주며, 합리적 지배란 근대 사회 이후에서 합리적 이성에 근거하여 논의되고 설득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과도기적으로 새로운 변화 국면에서 개인의 카리스마에 기반한 카리스마적 지배도 가능하다. 따라서 근대국가는 힘이라는 측면에서 이렇듯, 물리적 폭력 수단을 정당하게 독점하고 합리적 지배를 행사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매력에 파워가 있다.”(Nye, 2004: 30) 또 소프트 파워는 갈등이나 전쟁 이후 협력을 손쉽게 이끌어낸다. 소프트 파워는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색다른 통용수단을 활용한다. 즉 공동의 가치와 정당성, 그리고 그런 가치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매력을 느끼게” (Nye, 2004: 33) 하기 때문이다.

국제정치나 전쟁에서 이러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은 이미 동양의 유가적 전통에서 오랫동안 강조되었다. 「논어」의 ‘위정(爲政)’ 편 1장에서 “정사(政事)를 덕(德)으로 하면 복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못별들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덕(德)으로 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제 자리에 서서 그에 복종한다고 하였다. 3장에서 공자는 “정사를 법으로 하고 형벌로 제단하면 백성들이 형벌을 피할 수는 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형벌 등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면 그 형벌을 피하려고만 하지 자신의 악한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爲政以德 사상은 맹자에 이르러 국제정치적 전쟁론의 핵심으로 표현되었다. 「맹자」서 첫 편인 ‘양혜왕 상편’ 1장을 보면, 전국시대의 패왕 중의 한 명인 양혜왕이 맹자를 만나 나라를 이롭게 하는 방도를 묻자 맹자는 다음과 같이 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시면, 대부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하며, 선비나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하여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을 취한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만승(萬乘)의 나라에서 그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천승(千乘)을 가진 공경의 집안이요, 천승(千乘)의 나라에 그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백승(百乘)을 가진 대부의 집안이니, 백승(萬乘)에 천승(千乘)을 취하며 천승(千乘)에 백승(萬乘)을 취함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만일 의(義)를 뒤로 하고 이익을 먼저 하면, 모두 빼앗지 않으면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각 자의 위치에 맞는 역할과 규범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어 3장에서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왕께서 만일 仁政을 백성에게 베푸시어 형벌을 신중히 하시고 세금을 적게 거두

면, 백성들은 깊이 밭 갈고 김매고, 장성한 자들은 여가를 이용하여 효제(孝悌)와 충신(忠信)을 닦아서 들어가서는 부형(父兄)을 섬기며 나가서는 장상(長上)을 섬길 것이니, 이들로 하여금 몽둥이를 만들어 진나라와 초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병기를 매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모든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나라의 질서를 곧바로 세울 때, 스스로 나서 그들이 나라를 지킬 것이라고 천명한다. 6장에서 누가 그 당시 전국시대를 통일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맹자는 단호하게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능히 통일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유가적 국제정치사상은 이후 무(武)보다 문(文)을 지나치게 숭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였지만, 오늘날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건주어 볼 때, 국제정치에서 힘은 국내정치에서 연유한다는 사실, 물리적 수단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 천하를 지배하는 데서도 물리적 수단 못지않게 비물리적 수단이 중요하다는 사실 등 매우 중요한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조세프 나이 교수가 군사력과 경제력과 구분하여 소프트 파워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동아시아 유가적 국제사상 전통과 맥이 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소프트 파워는 <표 1>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Nye, 2004: 71). 파워 행사 방법으로 보면, 군사력은 실제 강제력과 억지력 등이지만 소프트 파워는 상대방을 자발적으로 끌어들이는 ‘매력’과 갈등을 바라보는 눈이나 해결방향이나 어젠다(의제)를 설정하는 매우 적극적인 요소이다. 주요 수단에서 보면, 군사력은 위협과 군사행동 등 직접적인 데 반해, 소프트 파워는 제반가치나 문화, 정책, 제도 등 간접적이지만 매우 광범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정책 또한 군사력 측면에서는

<표 1> 파워의 3가지 형태

	행위	주요 수단	정부 정책
군사력	강제, 억지력, 보호	위협, 군사적 행동	강압적 외교, 전쟁, 동맹
경제력	유인, 강제	보상, 제재	원조, 매수, 제재
소프트 파워	매력, 어젠다 설정	제반가치, 문화, 제반 정책, 제도	일반 외교활동, 쌍무적/다변적 외교활동

강압적인 외교나 전쟁, 동맹 등 직접적이고 응징적인 데 반해, 소프트 파워는 일반 외교활동이나 쌍무적, 다변적 외교활동 등 다양한 정부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이한 파워간의 상호영향 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물리적 파워의 행사가 이라크 전쟁처럼 소프트 파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한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열세에 있게 되면 실제 하드파워의 행사 자체까지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두 가지의 균형적 행사가 중요하며 특히 기계적 균형이나 조화가 아니라, 두 가지 파워를 적절히 동원하고 필요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와 능력이 미래전장에서 결정적이라 할 것이다.

소프트 파워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 파워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상징력이다. 호감도, 이미지 등 다양한 상징자원이 동원될 수 있다. 이러한 상징자원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호감을 사게 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자신들의 목표에 동조하게 하는 것이다. 갈등이나 전쟁에서는 상징자원은 실제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이다(Nye, 2004: 66). 그런 점에서 도덕성 등 상징자원은 곧바로 현실적 파워가 될 수 있다. 또한 상징력은 내부적으로는 상황인식이나 목표의 공유를 쉽게 하여 강력한 파워로 전화된다,

(2) 소프트 파워의 두 번째 요소는 문화력이다. 상징력이 한 나라의 이미지의 측면이라면, 문화력은 한 나라의 일상적 가치규범, 사고방식과 생활패턴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갖게 하는 호감과 매력이라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문화는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호감과 매력을 갖게 하는 요소도 있지만 반대로 반감이나 조롱 등 부정적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점에서 문화적 힘은 한 나라의 문화의 호감과 매력의 정도뿐만 아니라 반감이나 조롱 등 부정적 정도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프트 파워로서 문화적 힘은 직접,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상징이나 이미지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속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훨씬 중요하다.

(3) 소프트 파워의 세 번째 구성요소는 인재(력)와 조직력이다. 소프트파워는 사람의 힘이며 조직의 힘을 통해 나타난다. 나이 교수는 소프트 파워로서 상징자원과 문화자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소프트 파워를 물리적 파워와 연결하고 활용하는 것은 사람이며 조직이다. 아무리 발달된 기술환경에서도 실제 그러한 무기체계를 활용하고 조직화해 내는 것은 전문화되고 정예화된 인재와 조직의 힘이기 때문이다. 전방위의 미래 전쟁에서 사람의 힘은 넓게는 한 나라의 국민 전체의 인적 능력을 의미하며 좁게는 군의 인재를 의미한다. 조직의 힘 또한 마찬가지다. 한 사회에서 소프트 파워는 인재 개개인들의 능력과 더불어 그러한 개인적 능력을 적절히 조직화할 때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소프트파워와 상징력

소프트 파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징의 힘이다. 상징 파워는 외부와 내부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외부적으로는 상대방의 대응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와해한다. 우월한 상징 자원을 동원하여 상대진영의 대응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비판하고 그들보다 우월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가질 때, 상대진영 내부의 전투적 자세를 약화시킬 수가 있다. 즉 상대방을 설득하고 전의를 상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더 이웃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이웃나라 및 국제사회의 지원을 차단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내부적으로 조직의 힘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더욱 정당성을 가진 전쟁이나 갈등해결은 그만큼 내부 조직의 전투적 자세를 고양시킬 수 있고 상대방의 심리전에 말려들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전장에서는 실제 전쟁보다 전쟁 개시에 이르는 과정에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점이다. 즉 물리적 굴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것, 더 나아가 설득하여 전쟁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며 좀더 나아가 호감도를 높여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상징자원이나 모두 상징적 파워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상징적 파워는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상징자원을 기초로 하며 실제 동원할 수 있는 전략

적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동원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국가의 실제 상황과 위치에 걸맞게 동원가능한 상징자원이라는 뜻이며 동원하는 상징자원은 상당한 정도로 자신들의 실제 유지하고 지키는 중요한 가치규범이나 지향에 부합하여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현실에 부합하느냐 하는 점이 상징적 파워의 정도 또는 강도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표리부동한 상징자원은 실제 상징 파워로 전환되지 않는다.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하는 ‘민주주의’는 혼란과 동일시되기도 하고, 일사분란함과 배치되기도 한다. 민주주의는 때문에 무책임 또는 일탈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관용(참을성)을 그 기반으로 한다. ‘자유와 자율’이라는 상징 자원도 남에게 피해가 주지 않는 한, 사회적인 공공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 “거의 무조건, 거의 무한대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어떤 종교나 사상이든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상과 종교를 기반으로 한 갈등과 전쟁에서 쉽게 사상과 종교의 자유는 무시되기 쉽고 적대시하기 쉽다. 그러는 경우, 자유와 자율의 상징자원을 훼손된다.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다. 국가와 민족은 운명공동체로서 오랫동안 대단히 중요한 상징자원이다. 하지만 글로벌 사회에서 국적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탈국가’, ‘탈민족’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만큼 전통적인 운명공동체로서 국가와 민족에 ‘충성’하는 정도와 수준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 모두가 ‘내가 왜’ 어떤 가치규범과 취향에 따라 어떤 조직에 어떤 국가, 민족에 충성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미래전장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상징자원과 그 상징적 파워가 무엇인가 하는 점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나 삶의 중요한 규범과 문화를 어느 정도 내세울 수 있고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출발되며,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와 인정도를 말해준다.

물론 상징의 힘은 실제 전장에서는 상대적 가치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상대방(진영)에 비해 보편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상징적 강점이 많을 때, 또 상징적 전략을 잘 사용할 때 우위에 있다. 또한 놓여있는 전략적 위치에 따라 상대적인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세력변화 와중에 있다. 동북아시아

아에서 세력균형이란 일시적인 과도기일 뿐 지배적이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동북아 세력균형이 우리의 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김경원, 2005).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그리고 미국의 역할 등으로 특히 “앞으로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세력균형의 환경에서 섬세하고 미묘한 균형의 전략을 시행하려면” (김경원, 2005) 물리적 파워 못지않게 다양한 소프트 파워를 동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때문에 국내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국민의식과 생활문화에서부터 그러한 균형감각을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프트한 균형 (soft balancing)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이나 통일한국 수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듯 소프트한 상징자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가치있는, 우리의 강점인 상징자원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의 강점으로서 상징자원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시장을 기반으로 짧은 시기에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한 強中國”: 세계은행에서 내놓은 “동아시아의 기적”(1993)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연평균 7%라는 고도성장을 통해 1960년 1인당 국민소득 100불 수준에서 1990년 10,000불 수준으로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모범국가로서 소개되었다. 물론 고도성장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환경파괴, 전투적 노사관계의 형성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아 우리 경제성장 속도가 최근 5%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빈국에서 세계 11위의 무역대국 즉 강중국(強中國)으로 성장하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우리의 성장은 선진국의 차관을 적극 끌어들이며 국내에 경쟁력 있는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초기부터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물건을 파는 수출지향적인 경제정책에 그 특징이 있다. 세계시장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점이다. 이렇듯, 우리 성장모델은 국제시장에 개방적이며 국제적 차원에서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때문에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중국, 베트남, 동유럽에서 우리나라 배우기는 하나의 지적 유행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국제적 개방성과 협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강중국으로 도약한 모범국가로서 상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징적 이미

지는 무엇보다도 첫째 국제적 협력과 평화를 증진하는 데에 국제정치적, 군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 의료 및 재건 등을 위한 비전투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이러한 상징적 이미지에 크게 부합한다. 또한 둘째 강대국보다 국제적 사안에 대해 공정한 조정자 혹은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최근 반기문 현직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사무총장으로 당선된 사례는 이러한 상징적 이점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국제정치적, 군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국제적 사안에 대해 공정한 조정자 및 협력자로서 역할을 적극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국제적인 소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그 수도는 서울이 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간 신뢰를 얻고 있어 양국간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이렇듯 강중국의 이점은 대화와 중재의 역할을 극대화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정치적, 군사적 위상을 제고하고 또 동북아 평화질서 및 국제적 평화질서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2) “제3세계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민주화된 나라”: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강중국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빠른 기간 내에 민주화를 이룩해낸 모범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 중 비슷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다가,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를 이루지 못해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경제성장에도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우리나라도 한때 ‘군사독재의 나라’ 혹은 ‘채류탄과 학생시위의 나라’로 낙인찍힌 적이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계 11위 국가이며 그러한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최근 20년 동안 단기간에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하여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사회적으로 탈권위주의 및 민주화가 확산되는 명실공히 민주주의의 성공사례로 지칭되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많이 불거지기도 하지만, 정치적 자유나 사상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탈권위주의 등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징적 이미지는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민주국가로서 세계적인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많은 제3세계 국가에게 ‘경제성장

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발전시킨, 배우고 싶은 나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향후 국제적 갈등과 분쟁 시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조정자 역할을 적극 담당할 수 있을 여지가 높다. 특히 강대국에게 여러 가지 피해의식이 강한 나라에서는 3세계에서 민주국가로 성장한 강중국으로 우리나라의 조정 및 갈등해결 역할을 크게 신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거듭나, 시민사회에서 유선, 무선 등 인프라 측면뿐만 아니라 서비스 측면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민주화를 앞당겼으며 또한 세계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발하고 싸이월드 등 새로운 소통영역을 만들어내는 디지털강국으로 자리하였다. 이렇듯, 민주주의를 선진기술과 연결하는 선도적인 디지털 민주국가로서 이미지는 우리나라의 국제정치적, 경제적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적 자원을 더욱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과도기적 부작용과 갈등 등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사회의 성숙된 의식과 민주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노사갈등, 이익집단의 이기주의, 지역주의, 방종, 지나친 개인주의와 사회적 무책임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합의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때, 그리고 자유와 자율,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치규범과 문화 측면에서 “중심있는 다원주의”를 지향해 나갈 때, 모범적인 민주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그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은 한층 고양될 것으로 보인다.

(3) “서구와 전통문화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창조 국가”: 우리나라는 자립적인 근대화에 실패하여 식민지와 전쟁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어 선진 문화를 배우는 데 한계가 없었다. 그렇게 지난 세기 동안 세계적인 문화의 용광로라 할 정도로 세계 각국의 문화를 배우고 습득한 결과 우리는 서구문화와 우리의 전통문화를 융합하여 대단히 독특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였다. 우리나라 드라마, 영상물이 서구문화의 영향 속에서 제3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주목을 끌고 매력을 갖는 것은 ‘한류’의 붐에서 잘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창조는 우리의 문화를 고집하는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문화적 개방성’을 그 특징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류 등 우리 문화의 특징이 있다. 현재 한류는 중국이나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넘어 남아메리카나 동유럽에서도 우리 드라마나 영상물이 이목을 끌고 있

기 때문이다. 확실히 서구문화의 압도적인 영향 하에서 자국의 문화적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많은 제3세계 국가에게 문화적으로 나아갈 비전과 방향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듯하다. 특히 문화적으로 매력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매력이 한 사람의 일생에 걸쳐 오래 지속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문화창조국가로서의 상징적 자원도 우리나라의 국제정치적, 군사적 활동에 커다란 활동공간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징자원을 기초로 우리의 국제적 활동을 더 쉽게 공감하고 호의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고 더 큰 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 “교육열과 수준이 높은 나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열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이다. OECD 국가 중에서 대졸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인구밀도가 높고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질이 높은 인력자원을 기초로 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민주화의 빠른 확산도 가능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에서 교육을 중시하고 인재를 중시하는 사상이 면면히 이어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휴먼 파워를 중시하는 상징적 이미지는 현대사회의 지식기반경제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물질 자원이나 자본보다도 사람의 창의성과 창조성이 부가가치 생산과 국제적 경쟁에서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휴먼 파워를 중시하는 국가 이미지는 국제사회에서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가치있는 활동의 여백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과도한 교육열로 사회문제가 잦고, 교육수준에 비해 우수한 인재양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여, 사람 중시, 혹은 인재 중시의 나라로서 국제사회에 자리잡는 것은 국제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상징적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소프트파워와 문화력

또 다른 소프트 파워는 문화의 힘이다. “한 사회의 일상적인 삶과 사고의 총체적인 표현형태”로서 문화란 국제적으로 상대적이어서 이념형적으로는 문화의 우월성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더 선호되는, 더 호감가는 문화양식이 존재하고 그러한 더 호감과 매력을 느끼는 문화양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문화는 그만큼 국제적으로 문화의 힘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힘이나 품격은 경제적 생활수준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그 자체만을 분석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문화적 힘과 품격은 보편적인 수준에서 선호도와 매력도로 표현될 수 있으며 상호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환경 하에서 다면적인 갈등과 전장에서 문화적 힘은 소프트 파워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프트 파워는 발휘된다. 중국에서 시집은 며느리의 생활이 중국 친지들을 통해 알려지고 그럼으로써 중국에서 우리나라 호감도에 영향을 미친다. 외국의 국내 여행자가 귀국하여 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이미지를 전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만난, 경험한 많은 외국인들이 짧은 경험이고 인상이지만 중국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나 국가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 몽골이나 동남아시아의 일부 부도적인 관광은 결국 우리나라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준다.

날로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정치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에서 전방위적으로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활동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국내활동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이 높아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과 삶은 그 자체로 소프트 파워가 되고 있다. 상대방 나라를 포함하여 외국인들이 우리 시민들의 일상의식과 삶에 대해 얼마나 호감을 갖느냐, 매력을 느끼느냐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단순히 그 결과 외국인 방문자가 늘어났고 우리 상품이 잘 팔린다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 국제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류 드라마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고 우리의 쌀이 대장금표 쌀

로 수출된다는 사실을 넘어, 드라마를 시청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그러한 삶과 사고방식을 호감을 가지고 동경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중요한 소프트 파워가 되기 때문이다.

(1) 소위 한류를 형성하는 드라마 및 영화: 겨울연가, 대장금 등 우리나라 TV 드라마와 영화가 동북아 및 동남아를 넘어 유럽이나 남미 등 많은 나라에서 새로운 문화유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나 유럽의 예술영화 등 기존의 선진국 영화나 드라마와 다른 색다른 내용과 취향으로 많은 비서구인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공감을 자아내는 듯하다. 이것은 서구문화의 영향 하에서도 새로운 문화유형을 갈망하는 전세계인들의 문화지형 속에서, 서구문화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유형을 만들어낸 한국 문화에서 그 색다른를 발견하고 있다 하겠다. 한류 드라마나 영화를 본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한국인의 사고방식, 한국인의 삶의 방식, 한국인들의 상호관계에 대해 상당히 호감을 갖고 매력을 느낄 뿐만 아니라 방문하고 싶고 심지어는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싶은 '자기동질화'에 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간접적 문화체험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우리의 국제정치적 활동의 폭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김치, 불고기, 인삼 등 한국음식: 한국 음식은 프랑스나 일본 음식에 비해 아직도 국제화의 정도가 낮아 한국 레스토랑이 국제적으로 그 지위가 높지 않다. 하지만 한국 음식의 매니아는 점차 늘고 있다. 그동안 '인삼'이 국제적으로 보약 재료 많이 알려져 애용되어 왔으며 '불고기'도 특히 서양인들에게 매우 매력있는 음식으로 선호되고 있다. 특히 최근 환경친화적 음식으로 '김치'는 국제적으로 매우 독특한, 매력있는 음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공인받고 있다.

(3) 태권도 등 스포츠: 태권도가 각국에 보급되면서 태권도를 배운 혹은 배운 적이 있는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과 매력도가 대단히 높다. 태권도를 배우는 과정에서 단순히 발놀림의 하나하나가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를 이해하여야 하며 그런 과정의 핵심은 태권도가 한국의 전통사상 속에서 어떤

가치와 사상을 담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태권도 시범을 할 때 구령을 한국말로 한다든가, 운동을 마치고 함께 김치와 불고기를 먹는 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한국문화 체험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수련생들을 데리고 태권도 종주국을 방문하면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화체험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태권도가 한국인 및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과 매력도를 높이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또한 요즘 들어 야구에서 ‘박찬호’, ‘이승엽’ 등의 활약, 골프에서 ‘박세리’ 등 한국 여성골퍼의 활약 등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국제적인 스타의 활약은 그 나라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문화의 힘을 드높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4) IT 강국으로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IT 문화: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정보화인프라 강국으로 공인되어, 세계적인 상호이해와 소통의 중심국가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통신연합(ITU)와 OECD는 공히 우리나라가 시민사회 일반에서 초고속인터넷을 가장 많이 쓰는 세계 1위의 나라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IT 강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북, 동남아시아 국가에게 매력있는 나라가 되어 매년 많은 학자나 관료들이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IT 문화를 현장체험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우리의 IT 문화는 빠른 시간 내에 강중국으로 도약한 이미지와 더불어 매우 매력있는 나라로 각인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IT 문화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일명 ‘디지털외교’라고 명명될 정도로 IT 해외 봉사단을 제3세계에 파견하여 IT 문맹 해결에 일조하는 등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IT 강국으로서의 우리 문화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5) 기타: ‘한글’은 우리나라에 관심있는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여러 국가의 국민들에게 매우 인기있는 언어가 되고 있으며 특히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언어’라고 칭송을 받고 있다. 또한 건축양식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보온방식인 ‘온돌’은 건강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보온방식으로 각

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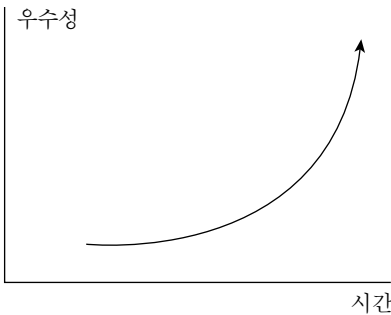
5. 소프트파워와 인재력과 조직력

소프트 파워의 세 번째 요소는 사람의 힘이며 조직의 힘이다. 소프트 파워를 현실적인 파워로 변환시키는 것은 인재와 조직의 힘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투환경이 날로 고도의 첨단무기체계로 발전되고 이에 따라 전문화되고 정예화되는 여건에서 인재의 힘과 그 조직적 표현은 조직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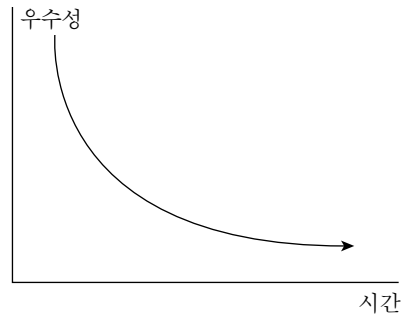
이러한 점에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군은 ‘인재의 전쟁’에서 앞서 있는가 하는 물음은 자명하게 제기된다. 경쟁하는 조직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있는가, 우수한 인재에게 매력있는 조직이 되고 있는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군의 우수 인재가 사회 다른 부분에게도 매력있는가 하는 사항이다. 인재가 없는, 혹은 인재가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는 조직은 쇠퇴하는 조직과 다름아니다.

인재는 적극 유치되어야 한다. 경쟁하는 조직의 인재에 비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재의 창의적 활동을 포용할 수 있는 조직의 개방성과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인재의 꿈을 실현시키고 더 큰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조직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 때 장교단과 일반(기간)사병을 차별화하여 장교단과 같은 핵심인재의 동향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시간 변수를 고려하여 인재구성이라는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그림 1>처럼 우수 인재가 매력을 느끼고 점차 몰리는 유형이다.

이 경우, 성장기 조직에서는 조직이 팽창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우수 인재를 내부화하고 조직을 안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성숙기 조직의 경우 그러한 젊은 우수 인재를 조직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가 필요하다. 조기승진이나 발탁 인사 등을 통해서 인사 정체로 인하여 우수 인재가 조직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인재 교체의 적절한 흐름과 타이밍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존 인재의 퇴진 이후의 길을 마련하고 우수 인재를 승진시켜 인재 순환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그림 1〉 A형 인재구성



〈그림 2〉 B형 인재구성

하지만 〈그림 2〉처럼 우수 인재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점차 기피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향은 특히 조직이 팽창하여 자연스럽게 인재 교체가 이루어지는 성장기 조직보다는 대체로 성숙기에 접어든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성숙기 조직은 조직의 성장이 둔화되어 상대적으로 인사 정체가 심화되고 동시에 조직의 관료화와 경직화가 나타난다. 그 결과 젊은 인재들은 쉽게 사기가 저하되고 좌절하게 되며 그 결과 더욱 더 젊은 인재들이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젊은 우수 인재가 점차 줄어들어 기피하는 것은 조직의 위기를 잘 말해준다. 특히 과거에 우수한 인재가 몰렸으나 이후 점차 우수한 인재가 기피하는 조직인 경우 조직혁신이 필요하다. 조직문화혁신을 통해 젊은 세대들, 특히 젊은 우수 인재들에게 매력있는 조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반권위주의적,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젊은 세대 문화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자율과 창의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또한 젊은 세대들을 끌어들이 수 있도록 조직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인재를 끌어들이는 것 못지않게 인재를 키우고 조직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인재 중시를 외쳐도 실제 인사관리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조직문화 입장에서 먼저 조직에서 중요한 인재가 누구인가 하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그들 우수인재로 평가된 직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훈련시키고 승진시키는 인사시스템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즉 인재 유치 못지않게 조직내부에서 인재 교육과 인재 승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많은 조직에서 인재를 유치하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교육훈련과

승진 등 인사관리를 통해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인사관리가 빈번할 때 실망한 인재의 이탈이 이루어진다. 우수 인재가 이탈하는 많은 조직을 보면, 인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제 조직의 인사전략 전반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와 또 조직의 인사전략에 반영되어 승진 또는 발탁되지만 현장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로 대별될 수 있다. 조직이 경직되어 왕따나 따돌림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의 적응을 막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조직문화가 우수 인재의 활용에 관건이 된다.

또한 인재는 적재적소에 맞게 다양화되어야 한다. 사관학교, ROTC, 단기장교 교육 등 각각의 능력과 역할에 맞게 전문화되고 정예화된 인재와 조직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야전과 전문 등 승진경로의 다변화와 세분화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통일적 지휘체계를 위한 통합직무순환도 필요하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환경과 사회환경에 맞추어 군도 이제 내부 인재 못지않게 외부의 훈련된 우수 인재를 충원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 기술발전에 따라 군장비나 무기체계도 날로 발전하여 전문적 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활용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재의 유동성을 고려할 때, 역으로 군의 인재가 민간 부문에서 얼마나 매력있는가 하는 점이 제기된다. 군에서 복무한 실적과 경력이 민간 부문에서 매력이 없을 때, 군 인재의 사기 저하와 젊은 인재의 기피로 악순환되기 때문이다.

조직은 인재와 물리적 파워를 조직화하여 실제 파워로 전환시키는 중핵요소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과 조직문화는 인재의 자율과 창의성을 적극 살리는 유연한 조직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1) 조직과 개방성과 유연성: 우수한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 수 있는 위계의 수평화, 자율성 발휘, 미래변화에 따른 이질성 충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합 이상의 인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재구성과 적재적소 인재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경직성과 관료화를 탈피하여 조직성장의 조건과 시점에 따른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네트워크 조직(networked organization): 다양한 기술체계, 인재, 조직 등을 그물처럼 연결하여 네트워킹하는 조직이다. 핵심인재, 핵심기술, 핵심조직의 쫓

좁한 연결과 주변인재, 주변기술, 주변조직의 느슨한 연결 등 차별화를 통해 조직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즉 개인과 조직의 자율성을 증대하여 인간, 조직간의 느슨한 연결을 허용하는 유연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특히 네트워크 조직은 기술과 인재, 조직이 이음새없이(seamless) 연결되어 외부환경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지능형 조직' (intelligent organization)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6. 맺는 말: 미래 전장에서의 소프트파워와 군의 과제

날로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환경에서도 누구나 쉽게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21세기 미래 전장에서 군은 날로 첨단무기체계, 지능화된 무기체계로 거듭나면서 동시에 전문화되고 정예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물리적 파워에 의한 응징 못지않게 우월한 정당성과 설득력, 호감과 매력, 도덕성, 인재의 힘 등 소프트 파워에 의한 전략적 목적 달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첨단무기체계나 지능화된 무기체계 등 물리적 파워 못지않게 그러한 선진적 기술체계에 부합하는 소프트 파워로서 조직문화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논문에서는 소프트 파워를 상징적 파워, 문화적 파워 그리고 인재와 조직의 파워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소프트 파워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상징적 파워이며 사람과 조직의 파워를 통해 실현된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에 낀 강중국이지만 다양한 상징적 파워를 갖고 있다. 강점을 갖는 주요 이미지는 “짧은 시기에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한 강중국”, “제3세계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민주국가”, “서구와 전통문화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창조 국가”, “교육열과 수준이 높은 나라” 등이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아직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점차 그 파워를 높여가는 중이다. 호감을 갖는 주요 문화는 “소위 한류를 형성하는 드라마 및 영화”, “김치, 불고기, 인삼 등 한국 음식”, “태권도 등 한국 스포츠”, “IT 강국으로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IT 문화”, “기타 한글, 온돌” 등 다양하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국제적 공감과 협력을 손쉽게 하여 우리의 국제정치적, 군사적 활동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자부심과 충성도가

고양되어 실질적인 파워 증진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프트 파워를 실현시키는 인재와 조직의 파워도 상당하다. 국방혁신을 통해 젊은 우수인재를 끌어들이고 교육훈련을 통해 인재를 키우는 체계적인 노력이 군의 인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 조직혁신을 통해 민주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재상과 조직상을 정립하고 더 선도적인 조직문화로 변신하고자 하는 점도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도 월남전 이후 리더십 교육 등을 강화하여 전력을 일신할 수 있었고 우리의 세계적인 기업 삼성도 세계 초일류기업을 향한 문화혁신을 통해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오늘날의 군도 미래 전장환경에 상응하여 인재유치와 조직혁신을 통해 새롭게 21세기 첨단정예군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호의존적인 지구촌 시대에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미래 전장에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21세기에 진입하는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하겠다.

- 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05), 《역동적 균형과 선진한국》.
- 서이중 (2001), 《지식정보사회의 이론과 실제》(증보판).
- 육군본부 (2007), 《육군가치관 및 장교단 정신》.
- 임창희/가재산 (1998), 《한국형 팀제를 넘어서》. 삼성경제연구소.
- 임현진 (2001), 《21세기 한국사회의 안과 밖》. 서울대출판부.
- 하영선/김상배 (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 을유문화사.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5), 《동북아 전략균형》.
- Denning, Dorothy E. (1999), *Information Warfare and Security*, Addison-Wesley.
- Donald P. Crane/W.A. Jones (1991), *The Public Manager: Contemporary Challenges and Responsibilities*, Georgia State University Press.
- Joseph S. Nye, Jr. (2004), *Soft Power*. 홍수원 역, 《소프트 파워》. 서울: 세종연구원
- Porter, Michael (2001), *On Competition* 《경쟁론》. 세종서적.
- Max Weber (1913), *Wirtschaft und Gesellschaft*. 박성환 옮김. 《경제와 사회》. 문학과 지성사.

The Role and Function of Soft Power in Future Warfare: Implications for Korea

Yi-Jong Suh*

This paper deals with theoretically developing Joseph Nye Jr.'s problematics of soft power into a sophistication of subcategories: not only symbolic and cultural power but also human & organizational power, and with applying it to Korean situation with strong interest in power balancing among neighboring superpower countries. As symbolic power there can be economic growth in global market, successfully democratized country, new culture-creative country, enthusiasm to education, etc. while there can be "Han-ryu," "Korean food," "Taekwondo," "strong power in IT" etc. as cultural power. In order to use strategically these power, Korean military should innovate itself according to further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various needs of the young and develop it into more flexible and networked organization with more elite power.

Keyword: soft power, symbolic power, cultural power, human power, organizational power, military

* Yi-Jong Suh had studied in Germany and Japan and received PH.D. in Free University of Berlin, He is now professor of department of sociology and adjunct professor of STS program,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published books are "Scientific-Social Controversies and Korean Society"(2005), "Safety and Risk of Korean Society"(2003), "Internet Communities and Korean Society"(2002), "Venture Capitalist and Their Spirit in Korea"(2002), "Theory and Realities of Knowledge-Information Society"(2001) etc.